

사무엘하 16. '다윗의 도피 생활과 압살롬의 범죄' (삼하 16 장 1-23 절)

들어가기

본 장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어쩔 수없이 예루살렘 성을 급히 도망쳐 나온 '다윗'을 맞이한 두 사람과 예루살렘 성을 무혈입성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받아들여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피난 길에 오른 '다윗'을 맞이한 첫 번째 사람은 '시바'였습니다. (1-4 절)

1) '시바'는 누구인가? (삼하 9 장에서 이미 언급했음)

✧ '시바'란 이름의 뜻은 '힘'이라는 뜻.

✧ '사울' 집안의 종으로, '사울'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자, '사울'의 모든 재산을 대신 관리하며, 종 아닌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음. (15 명의 아들과 20 명의 종을 두었음)

✧ 몇몇 학자들은 그는 '사울'과 함께 잃어버린 양 나귀를 찾았던 종이라고도 추측.

✧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돌려주면서, '시바'에게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므비보셋'을 섬기도록 함.

2) 그런데 피난 길에 오른 '다윗'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해 찾아 왔다는 것!

✧ 이때 준비한 음식은 떡 120 개, 건포도 100 송이, 여름 과일 100 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3) 그럼 '시바'는 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다윗'을 찾았을까?

✧ 표면적인 이유는 피난 길에 오른 다윗 일행들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보충하길 바래서였음.

✧ 그러나 '시바'는 이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얻어 '므비보셋'을 모함한 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다는 것.

▪ 3 절 주목.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 그러나, 19 장 24-27 절을 보면, 이런 '시바'의 보고는 분명한 거짓말!

✧ 진실은 '시바'가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 '므비보셋'이 이것을 준비해서 '시바'를 통해 보낸 것이고, 자신은 다리를 절었기에 말을 타고 함께 올 수 없어 집에서 '다윗'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

✧ 그러나 '시바'는 이 사실을 숨기고, '므비보셋'을 모함하여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했다는 것.

▪ 세상에는 이렇게 이웃의 난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악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뉴스: 자신의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고발한 대리기사) ->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주님을 닮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시바’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므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줌!

▪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성급한 결정을 내렸을까?

✧ 아마도 ‘시바’의 말을 듣자마자 쉽게 흥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닐까?

✧ 또한 당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해 있었던 ‘다윗’에게 ‘시바’가 준비한 음식은 인간적으로 큰 위로를 주었기에 ‘시바’의 말을 쉽게 믿어버린 것이 아닐까?

✧ 참고: 이 장면에 대한 한 신학자의 코멘트

- ‘정의에 갇힌 자일수록 분노가 크기 쉽고, 분노가 클수록 정죄하고 미워하기 쉽다.’

- 성도는 늘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공의를 내세워야 할 때에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

## 2. 피난 길에 오른 ‘다윗’을 맞이하는 두 번째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5-14 절)

1) ‘시므이’는 누구인가?

✧ ‘사울’의 친족으로, ‘게라’의 아들.

✧ 그는 피난 중인 ‘다윗’을 향해 계속해서 저주하며 돌을 던짐.

2) ‘다윗’을 향해 ‘시므이’가 외친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①. ‘다윗’이 ‘살인자요, 추악한 범죄자’라고 비난함!

- 7 절, ‘...,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②. ‘사울’ 집안의 모든 피가 ‘다윗’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다윗’에게 돌리신다고 비난하며 저주하였음!

- 8 절,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 그럼 이런 ‘시므이’의 비난은 참이라고 볼 수 있을까? -> Yes or No

✧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

✧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다윗’과의 전쟁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임,

✧ 그 후 ‘사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도 ‘다윗’ 때문이 아닌 ‘이스보셋’의 군대 장군인 ‘바아나’와 ‘레갑’이 반역하여 죽인 것.

✧ 따라서 ‘사울’ 집안의 모든 피는 사실은 ‘다윗’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음!

✧ 그러므로, ‘시므이’의 비난은 ‘다윗’을 향한 순전한 개인적인 증오심에서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

✧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형제였던 ‘아비새’는 ‘시므이’의 비난을 듣자마자 크게 분노하여, 자신이 ‘시므이’의 목을 베어 오겠다고 ‘다윗’에게 보내달라 청했다는 것.

3)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아비새’를 말리며, ‘시므이’의 비난을 참고 인내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9-14 절)

▪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자세 3 가지를 주목해 보자.

①. 자신이 ‘아비새’보다 더 크게 화를 내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아비새’를 진정시켰음!  
 - 10 절 a, ‘…,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 곧 나를 욕하는 내 일에 괜히 네가 참견해서 살인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렸다는 것!  
 -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서 상대를 욕하고 남을 비난해 주는 사람을 내편이라 생각하며 좋아하고 함께 한다.

②. 이 모든 일이 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징계라 고백하며, 그 순간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 죄인됨을 자청해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  
 - 10 절 b.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 11 절 b. ‘…,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③.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것.  
 - 12 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 우리를 욕하고 공격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도 똑같이 저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며,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고,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봅시다.

3. 이 무렵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무혈입성 하였고, 이때 ‘다윗’의 친구 ‘후새’는 ‘압살롬’을 영접하였습니다. (16-19 절)

1) ‘후새’는 ‘다윗’의 부탁대로 ‘압살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 ‘압살롬’을 왕이라 부르며, ‘압살롬 만세’를 반복해서 외쳤음.

✧ 특히 ‘압살롬’이 “‘다윗’의 벗이란 자가 어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 지적하며 따지자, ‘후새’는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압살롬’이기에 자신은 이제부터 ‘다윗’에게 충성했듯이 ‘압살롬’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충성서약을 함.

✧ ‘압살롬’은 이런 ‘후새’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를 자신의 측근으로 삼음. (삼하 17 장 5 절)  
 - 이는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

4.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그 다음 전략을 구했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20-23 절)

1) ‘아히도벨’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①. ‘압살롬’과 ‘다윗’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완전히 단결된 관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 21 절,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②.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망설임도 하지 않고 더욱 더 담대하게 반역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 21 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 참고: 고대에는 왕의 아내와 첩을 차지하는 것이 왕권 장악을 공식화 하는 선포로 이해되었음.

2) ‘압살롬’은 이런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 일부러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친 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옥상은 ‘다윗’이 맨 처음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된 첫 출발점!  
- 곧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됨!

3) 성경은 ‘다윗’과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물어 응답 받은 말처럼 믿고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 그 만큼 당시 ‘아히도벨’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

✧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악한 지혜로 사용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노력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